

*arirang* + 이재승 · 아리랑국제방송 라디오기술파트 차장

# 우면산 꽃내음이 가득한 영어전문편성 아리랑 라디오

[2008년 라디오 개국 5주년 뮤직페스티벌]



## 아리랑국제방송 라디오 기술

아리랑국제방송은 서울의 남쪽 우면산 기슭에 우뚝 서있는 아리랑타워 빌딩 8층에 아리랑 라디오의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기술' 가족 여러분, 가슴 따뜻한 포근한 봄날에 모두 평안하신지요? 아리랑국제방송 라디오 기술부문을 소개하게 된 이재승입니다.

아리랑 라디오는 외국어전문편성 라디오방송으로서 영어 등 외국어로 한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다. 흔히, 아리랑 라디오를 영어라디오방송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아리랑 라디오가 제작여건상 영어로만 거의 모든 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영어방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영어전문편성방송"으로서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차후에는 아리랑 라디오도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Needs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다언어방송 체제 구축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영어 등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청취자들에게도 유용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국내 최초 “영어라디오”의 시작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및 포스트 월드컵 대책 중 ‘국가 이미지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송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외국어전문편성라디오방송” 주체로서 “1997년부터 아리랑TV를 운영하면서 영어 등 외국어를 통한 국가홍보 노하우를 쌓아온”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선정하고, 2003년 당시 FM 주파수 할당이 가능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아리랑 라디오는 2003년 9월에 국제적 감각을 가진 외국어 전문 채널을 지향하고 있다. 생활정보, 날씨, 교통, 관광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정보와 더불어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으로,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 및 예술의 우수성을 알려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내국인에게는 국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국했다.

2003년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 중이던 제주 특별 자치도에만 서비스 되던 FM 방송에서 확대되어 2005년부터는 지상파DMB 및 위성DMB를 방송함으로써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아리랑 라디오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을 위한 밀착형 생활/관광 정보, 시사/보도는 물론 한국 가요 등 다양한 음악 및 오락, 내국인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악방송, 서울 교통방송, YTN 라디오 등과도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공급을 하고 있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부산지역에도 부산 영어FM 방송을 통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제주지역 아리랑 라디오 방송구역도]



1) 아리랑라디오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의 라디오 채널이다. 아리랑국제방송은 민법 제32조에 근거, 1996년 4월 10일 설립되어 1997년 2월 국내에서 케이블을 통해 영어로 방송을 시작한 이후 2000년 9월 두 개의 국제채널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및 미주 등을 대상으로 매일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국내 위성방송을 그리고 2004년 8월부터는 아랍어 위성방송을 실시하면서 방송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설립 목적은 방송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을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1998년 8월 문화관광부 장관의 해외홍보방송 운영주체 지정에 따라 공식화됐다.

## Contents

이재승 · 아리랑국제방송 라디오기술파트 차장  
+ 우면산 꽃내음이 가득한 영어전문방송 아리랑 라디오

아리랑 라디오의 방송수신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상파DMB로 수신 가능하며, 전국적으로는 위성DMB 오디오 Ch36으로 수신 가능하다. 부산지역에서는 FM 90.5MHz로, 제주지역에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3개 방송권역으로 구분하여 제주시 지역에서는 FM 88.7MHz로 견월악 송신소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FM 88.1MHz로 삼매봉 중계소에서, 제주서부지역은 FM 88.1MHz로 어음 간이 중계소에서 송출하는 방송 주파수로 청취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리랑 라디오는 FM 라디오나 DMB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PC를 통해 방송청취가 가능하다. 인터넷전용 플레이어인 "Arirang Cast"를 2007년에 개발하여 아리랑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내려 받아 국내외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아리랑 라디오를 청취하고 사연을 보낼 수 있다.

아리랑 라디오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문화 향상을 위한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방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라디오 기술의 업무와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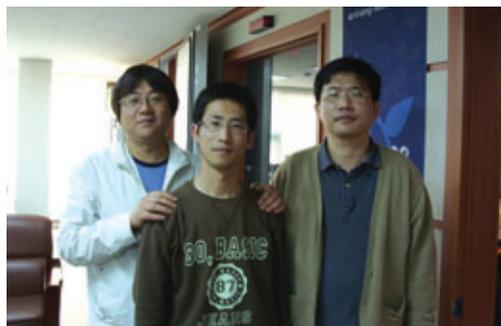
2003년 아리랑 라디오 개국 당시에는 라디오방송본부 라디오 기술팀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 방송사 조직개편으로 방송본부 방송기술팀 라디오 기술부문이 되었고, 현재 라디오 기술부문은 서울 연주소와 제주 연주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디오 기술부문의 구성원은 모두 13명이며, 서울 연주소는 김덕환 파트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5명, 파견직 4명으로 구성되며, 제주 연주소는 정규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연주소에서는 4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제작 채널은 제주FM, 위성DMB, 수도권 지상파DMB의 제작 및 송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 영어FM 방송으로의 송출과 국악방송, 서울교통방송, YTN 라디오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일일 평균제작 및 송출시간의 합계는 81시간이다.

제주 연주소에서는 현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서울 연주소에서 중계되어 온 프로그램의 송출과 제주지역 3개 사이트의 송·중계소(견월악 송신소, 삼매봉 중계소, 어음 간이 중계소)를 관리한다.



[서울 연주소 근무자]



[제주 연주소 근무자]

## 아리랑 라디오 스케치

### 서울 연주소

서울 연주소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을 위해 기계실 1, 2, 제주FM/위성DMB 주조정실, 송출실, 1·2·3 부조정실, DJ 1·2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편집실을 운영하며, 라디오전용 공개 방송 스튜디오, 라디오 중계차를 관리한다.



[제주FM/위성DMB 주조정실 기계실]



[지상파DMB 기계실, 송출시스템]



[TBS, YTN, 부산 영어FM 송출 라이브 부조정실]



### 제주 연주소 방송 및 송신시설

제주 연주소는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식산업 진흥원 4층에 위치하며 기계실, 주조정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건월약 송신소(FM 88.7MHz 3KW), 삼매봉 중계소(FM 88.1MHz 1KW), 어음 간이 중계소(FM 88.1MHz 100W)를 관리한다.

[제주 연주소 주조정실]



[건월약 송신소]

[건월약 송신소 방송용 송신탑]

[삼매봉 중계소 방송용 철탑]

### 영어 라디오 행사 스케치

아리랑 라디오는 청취자에게 다가가는 방송, 청취자와 함께 호흡하는 방송을 목표로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전국 여러 곳에서 라디오 청취자들을 공개 방송이나 공개 스튜디오를 통해 만나고 있다. 매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공개 방송을 러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중국, 남미, 제외동포 등지에서 온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초청 공개 방송]

아시아 최대의 방송영상콘텐츠 유통마켓인 국제방송영상컨벤션(BCWW2008) 전시회와 컨퍼런스에 공개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전시회 기간 동안 매년 현지특집 생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각국의 방송 관계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한국의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방송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국제방송영상컨벤션(BCWW2008) 전시회]

2007년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아라대동제 축제기간에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공개 스튜디오와 특집 공개 방송도 제작하고 영어FM에 관한 홍보도 실시했다.



[제주도 라디오 공개 방송]

2009년 9월에는 Arirang Radio 개국 5주년 특집 Music Festival을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박칼린의 진행으로 슈퍼주니어, 유진박, 김수철, 샤이니, 공명, 이상은, BMK, 다이내믹듀오 등이 출연하는 공개 방송으로 제주지역의 많은 청취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라디오 개국 5주년 뮤직페스티벌]

### 마치며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및 방문자가 6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외국인 상주인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여성을 포함하여 100만 명이 되고 있다. 아리랑 라디오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상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생활정보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내국인에게는 영어 공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랑 라디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남기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전용 플레이어인 "Arirang Cast"로 세계 각국의 많은 청취자들이 직접 듣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 영어라디오방송인 아리랑 라디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리랑 라디오가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는 소중한 매체로서 내·외국인 청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받기를 바란다.

+ 김덕환 · 라디오 기술 파트장



Q)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등 각 지역별로 개국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영어FM 라디오방송과 아리랑 라디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아리랑 라디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국문화 전반 홍보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모든 운영예산이 정부의 공공재원으로만 조달된다. 반면, 지역별 영어FM 라디오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시의 시정홍보 및 해당 지역 외국인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조달하며 상업광고 방송도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영어FM 라디오방송은 허가조건상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 방송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입목적과 일부 콘텐츠에 있어서 차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라디오와는 상당부분 중첩되는 청취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리랑 라디오는 이들 지자체 영어FM 라디오를 대상으로 한 방송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공급, 기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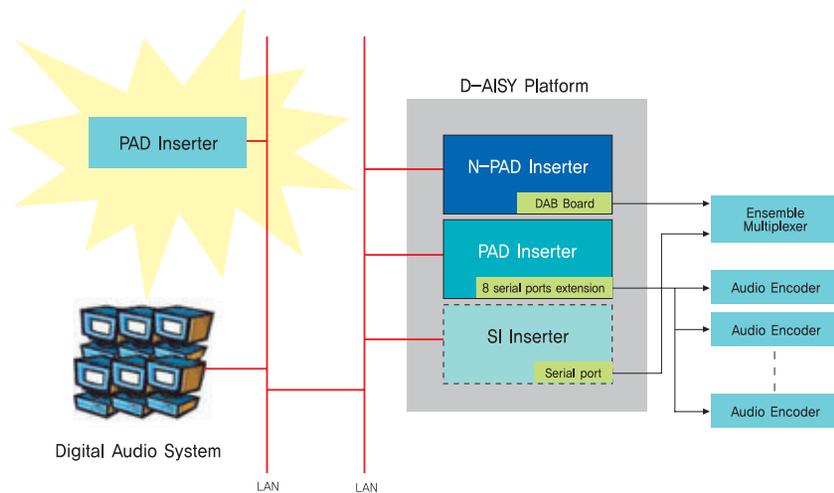
[아리랑 라디오와 지자체 영어FM 사업 비교]

구 분	아리랑국제방송	지자체 영어FM
시행주체	· 국제방송교류재단	· 지자체 또는 지자체 설립 재단법인
사업목적	· 국내거주 · 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문화 및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국가홍보 차원에서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FM 방송권역인 제주도과 DMB 권역인 전국을 포함) · 방송을 통한 내국인의 영어교육 환경 조성	· 해당 방송구역 관할 지자체 거주 및 체류외국인 대상 시정홍보 및 지역 정보 등 지자체의 공익적 서비스 차원에서 방송
수혜대상	· 국내거주 · 방한 외국인, 국민	· 해당 지자체 거주 및 체류 외국인, 내국인
사업내용	· 일일 24시간 외국어 방송(영어포함 기타 외국어방송 가능) · 95% 이상 자체 제작된 프로그램 방송	· 08년 연말기준 일일 약 2시간 영어 방송(영어로만 방송허가) · TBS-eFM만 자체제작 95% 이상, 기타는 22~30%
사업방식	· 제주권역 : 제주FM · 수도권 : 지상파DMB · 전국방송 : 위성DMB	· 해당 방송권역 FM 방송

Q) 지상파DMB의 PAD(Program Associated Data) 서비스가 다른 DMB 채널보다 상당히 잘 운용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인지?

A) 솔직히 다른 DMB 채널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5년 지상파 DMB를 준비하면서 오디오 채널용량의 한계와 청취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AD 서비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방송사에 할당된 오디오 채널용량이 충분하다면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용량 한계 때문에 현재 방송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향을 찾아야 했다. 또한, 청취자들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PAD 서비스 중에서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 Protocol) 서비스와 DLS(Dynamic Label Segment) 서비스를 준비했다.

MOT 서비스<sup>2)</sup>는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 방송 중인 노래의 가수 이미지, 앨범 등을 영상 이미지로 제공하며, DLS 서비스<sup>3)</sup>는 방송 중인 노래의 제목과 가수 명, 방송관련 공지사항 등을 문자정보 서비스로 청취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MOT 서비스를 위한 영상 이미지 구축은 2005년부터 시작했으며, 기존 각각의 디지털 오디오 파일과의 연동 작업은 완료되었다. 현재는 아리랑 라디오의 디지털 방송자동화 시스템과 연계되어 생방송이나 녹음방송 중에도 자연스럽게 송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였다.



[지상파DMB PAD 서비스 구성도]



[PAD 서비스 화면]

Q) 아리랑 라디오 기술의 비전은?

A) 2003년 아리랑 라디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내외 외국인들과 내국인 청취자들을 위해 영어 라디오 방송을 처음 시작했다.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 같은 나라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영어 라디오를 국가 중요시책 중에 하나로 집중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상주하는 나라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는 첫 걸음이 영어 라디오이다. 아리랑 라디오는 지난 6년 동안 영어 라디오 방송에 대한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청취자들이 영어 라디오 방송에 관심을 갖고 방송사로 청취를 문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영어 라디오 방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아리랑 라디오의 전국화가 조속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다.

2)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의 표준 프로토콜의 하나. 텍스트, 정지 영상, 동영상, 오디오 콘텐츠 등을 파일 형태로 전송하면 지상파 DMB 수신기에서 이를 수신해 재생할 수 있도록 한 프로토콜이다. 하나의 DMB 채널로는 노래를 틀어주면서 이와 연동된 다른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중인 노래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슬라이드처럼 순차적으로 제공하거나 곡명, 작곡자, 가수, 연주자, 가사, 콘서트 일정 등을 음악과 함께 그림과 문자로 제공할 수 있다.  
3) DLS(Dynamic Label Segment) 문자정보서비스는 DMB 라디오 청취시 노래제목, 가수이름, 프로그램 소개, 교통상황 등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이다.